

황교안 “박대통령, 메르스 제때 할 일 다했다”

병역 면제 의혹·변호사 수임 자료 미제출 공방

다운계약서·증여세 지각납부 등 도덕성 검증도

총리후보 인사청문회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증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사태에 따른 정부의 대처에 대해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제때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적극 반박했다.

황 후보자는 “정부가 초기에 더 단호하고 광범위한 대책을 이뤘는가 하는 점에 대해 아쉬움이 남고, 국민께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하면서 “(정부 대응에) 어떤 잘못 있었는지 사태가 수습된 이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제가 총리로 일하게 된다면 이런 국가의 재난 시스템을 점검, 총체적 대응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메르스 사태와 관련, 박 대통령의 대처가 늦은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선 그는 “국정 과제가 많고,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현출(顯出·드러내보임) 이런 건 충분하지 못할 수 있지만,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준비는 철저히 정부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메르스 사태 외중에서 박 대통령의 방미 일정 논란에 대해 황 후보자는 “대통령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껴갔다.

황 후보자는 대학생 시절 만성 담마진(두드러기) 질환으로 병역이 면제된 사유에 대해 “병역 비리 의혹은 전혀 없고, 그럴 집안도, 상황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학에 들어가면서 담마진이랑 병이 생겨서 그 이후도 17년 동안 치료했다”며 “여러 의학적인 검사를 한 다음 병역 면제 결정이 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군 복무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점에서 늘 국가와 국민께 빚진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심경을 밝혔다.

당·정·청 갈등 요인으로 떠오른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황 후보자는 “법률적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무부의 의견을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면서 “법률적인 부분은 그렇고, 어떻게 적용할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회에서 의결한 것도 있기 때문에 정치적·정무적 판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변호사 시절 수임 사건 가운데 세부사항이 삭제된 19건의 자료와 관련해 “(법조윤리협의회)에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의견을 맞춰서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 시작부터의 사전행방언을 통해 황 후보자의 일부 자료 미제출 문제를 거세게 몰아붙였다.

또 황 후보자의 병역면제를 둘러싼 의혹과 정치적 편향성 논란, 재산 및 납세 문제 등도 집중 제기했다.

여기에 황 후보자의 용인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증여세 지각 납부 의혹, 차량 과태료 미납 사례를 열거하며 황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도 나섰다.

하지만, ‘결정적 한 방’이 축적돼있지 않은 상황에서 황 후보자가 낙마할 가능성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다. 어지는 것도 야당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가라운지

박혜자, 여야 의원들에 광주U대회 홍보 베타이 착용 제안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광주 서구갑) 의원은 8일 메르스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방역 대책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광주하계U대회의 성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이날 본 회의에서 U대회 홍보 베타이(스카프)착용을 여야 의원들에게 제안했다.

아울러 광주 U대회의 초당적 협력과 지원의 의미를 담아 여당은 푸른색, 야당은 붉은색 베타이(스카프) 착용을 요청했다.

이에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당 대표, 원내대표 등 대부분의 여야 의원

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했다.

박 의원은 “메르스 사태로 인해 광주하계U대회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 많은 광주시민들이 우려하고 있어 초

당적 협력과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하게 됐다”면서 “동참해준 여야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광주하계U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이윤석·주영순 “무안군 8곳 농산어촌 개발 사업 선정”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하는 ‘2016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에 무안군이 신청한 8개 사업이 모두 선정됐다.

8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무안·신안·사진 원쪽), 새누리당 주영순(비례) 의원에 따르면 내년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중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의 선도지구와 일반지구로 무안군과 일로읍이 각각 선정됐다.

또 시군역량 분야에는 힐링푸드 체험관광인프라 구축과 무안군 역량강화 사업이, 창조적 마을 만들기 분야에는 운남면 신월마을, 일로읍 죽산마을, 풍탄면 늘머리마을이 마을단위 사업에 각각 선정됐다.



이와 함께 권역 단위 종합개발 사업에는 감방산 권역이 뽑혔다.

무안군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이들 8개 사업에는 총 216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그 중 70%를 국비로 부담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지방정가

문상필, 교육안전 조례 제정안 상임위 통과

문상필(북구 3) 광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제정안이 8일 상임위인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넘겨졌다.

이 조례안은 교육안전 전담부서 신설과 학생안전위원회 구성, 교육활동 및 생활·시설·교통·보건·급식·환경안전 전을 위협하는 사고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비롯한 행·재정적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은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때문에 장애를 입은 학생 수가 7명이며, 사망 학생의 수도 4명이다 된다”면서 “안전사고가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교육안전 전을 위협하는 사고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은방 “육성 종목지원 예산 삭감은 잘못”

이은방(북구 6) 광주시의원은 8일 열린 광주시교육청 2015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교육청이 편성한 육성 종목지원 예산이 전년도 대비 크게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제주시에서 열린 제4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지만, 동부교육지원청의 경우 전년도 대비 훈련비가 36.6% 삭감됐고, 서부지



원청은 전년대비 38.8%가 삭감되는 등 지원 예산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전지훈련비, 강화훈련비, 장비구입비 등의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거나 일부만 반영된 상태로 해당 예산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조세철, 헌혈자·장기기증자 예우 조례 본회의 상정

조세철(동구 2) 광주시의원은 8일 헌혈자와 장기기증자 예우를 골자로 한 ‘광주시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권장에 관한 개정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8월 13일을 헌혈의 날로,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는 한편, 헌혈자는 5년 동안 10회 이상 헌혈한 사람에게 2년간, 장기기증자는 기간 제한 없이 시의 시설물 사용료 등을 감면하고 주차료를 쉽게 감



면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확인증을 발급한다. 또 시장은 장기기증자에게 시가 운영하는 장사시설의 사용료 면제, 생촌 기증자 및 미담 홍보, 뇌사자 장기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 등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진숙, 주민참여 감독제 확대 조례 개정 발의

전진숙(북구 4) 광주시의원은 8일 ‘광주시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주민참여 감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장기연임으로 인한 유착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1회로 한정해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주민참여감독제는 공사금액 3000만원 이상 하천과 도로, 상하수도 관련 사업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주민대표가 감독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전 의원은 “개정안에는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감독 대상 공사에 대해 감리자가 있더라도 주민참여 감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공사의 상한 금액을 20억원 이하인 공사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매일 24면...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kwangju.co.kr

경매투자! 무엇이 정답인가!

NPL과 특수경매만이 정답이다!

특수비법 배우실 분!

- NPL과 특수물건만 전문취급
- 주 1회 2시간 3개월 완성
- 1대1 실전사례 교육
- 입장 / 교육비 등 2200만원
- 단, 상담 후 본사 결정

공동투자 하실 분!

- 지분이전으로 보장
- 연 12% 이상 수익률
- 투자금 1억원 이상
- 모든과정 공개 투명처리
-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함

돈 빌려주실 분!

- 근저당으로 보장
- 연 12~20% 이자 지급
- 차용금 1억원 이상
- 1년~2년 정도 기간
- 개인신상 비밀 보장

경매 전문회사 (주)오천경매 H. 010-3605-5000

광전파크 빌라

주인직매 H. 010-3605-5000

- 월산동 110-8번지, 34평
- 5층 중 2층, 첫 입주, 정남향, 신축
- 신우APT 105동옆, 즉시 입주
- 매매가 1억 6400만원 (용자 1억 1천만원 안고)
- 전세 1억 4천만원 가능 (삭월세 보 1천만원에 65만원 가능)

화순 “전원주택지”

- 화순군(읍) 다지리 산 12-7번지
- 대지 328평, 33필지 중 1필지
- 동면방향, 화순교차로에서 5분거리
- 기반시설 조성중(화순군청) 2015년 10월말 완공예정
- 매매가 1억 3천 120만원 (평당 40만원)

주인직매 H.010-3605-5000